

Marx 와 歷史哲學의 問題

李 三 悅*

- 서 론
1. 歷史의 本質과 人間解放의 目標 2. 歷史의 認識과 唯物論의 方法
3. 歷史의 進行과 主體的 實踐

서 론

현대사회와 사상에서 맑스와 맑스主義가 차지하는 비중은 막중하지만, 맑스의 思想을 哲學的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을 거듭하면서도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맑스主義(Marxismus)가 정치적 이데올로기화 함으로써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떠난 객관적이며 학술적인 논의가 방해를 받고있다는 사정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맑스의 사상체계가 가진 방대한 면모와 이론적 포괄성이 어떤 하나의 哲學理論속에서 정리되기 어려울 뿐아니라, 哲學이라는 '學問의 틀' 안에서 다 파악되거나 체계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에도 기인한다. 오늘날 맑스主義는 經濟學에서 사회주의 경제이론으로, 社會學에서 노동 사회학이나 계급이론으로, 政治學에서 국가와 혁명에 관한 이론으로, 그리고 이데올로기論으로 기타의 여러학문분야들이 나누어서 연구하고 있지만, 이것은 Habermas가 이미 지적하였듯이, "맑스주의의 분할적 연구는 상호관련과¹⁾ 전체성속에서만 파악되는 맑스주의의 意味를 바로 認識하지 못하게 하며, 理論과 實踐의 辯證法的 理解를 배제하는 결과를 낳게되고 만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철학이 전체를 파악할 능력이 없고, 과학이 분할적인 연구에만 매달릴 때, 맑스주의의 종합적이며 '哲學的인' 인식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남게된다.

맑스주의의 철학적 이해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맑스 자신의 哲學에 대한 否定的 見解에도 있다고 하겠다. 그는 이제까지의 哲學은 세계를 여러가지로 해석만했지 문제는 세계를 변화시키는데 있다고 했으며²⁾ 따라서 哲學이 實現되기위해서는 止揚(aufheben)되어야한다고 했다.³⁾ 물론 여기서 지양되어야 할 哲學은 독일적인 관념적철학이요, 이 現實체계에 매여있는 哲學으로서의 哲學이지만, 맑스는 철학을 실현하는 實踐이나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武器

*人文大學 哲學科 副教授

1) Jürgen Habermas, Theorie und Praxis, Newuied 1963, S. 172. Zwischen Philosophie und Wissenschaft Marxismus als Kritik .

2) Karl. Marx, Thesen über Feuerbach, MEW. Bd3. Borlin 1969. S. 5-7.

3) K. Marx, Zur Kritik der Hegelschen Rechtsphilosophie. Einleitung, MEW. Bd. 1. Berlin 1969. S. 394.

를 哲學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科學的 社會主義(wissenschaftlicher Sozialismus)라고¹⁾ 하는 실천적 이론속에서 찾았다. 물론 '哲學은 머리로 프롤레타리아는 가슴'이라고 했다는가, '철학은 프롤레타리아에서 물질적인(materielle) 무기를 찾고 프롤레타리아는 철학에서 정신적인(geistige) 무기를 찾는다'고²⁾ 함으로써 철학의 역할을 전혀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哲學의 實現과 哲學과 社會的 實踐의 결합을 주장한 맑스에게서 기존의 哲學의 概念이 이러한 思想을 담기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던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맑스가 제기한 새로운 이론과 사상체계를 철학이 아니라고 보거나, 철학적 이론이 없는 순수한 과학적 이론이라고 할수는 없다.³⁾ 맑시즘과 철학의 관계는 맑스와 엥겔스의 생시부터 논의되었을 뿐아니라, 맑시즘의 이해에 혼란과 위기가 왔을때마다 다시금 새롭게 문제가 되곤 했다.⁴⁾ 맑시즘의 철학적 이해가 辯證法的 唯物論(dialektischer Materialismus)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든, 人道主義的인 人間學(humanistische Anthropologie)으로 간주되든, 혹은 批判的 社會理論(kritische Sozialtheorie)으로 파악되든간에, 맑스의 人間과 社會에 관한 여러방면의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해하려고할 때에는 다시금 어떤 哲學的 思考와 理論의 틀안에서 파악하지 않을 수 없게된다. 문제는 어떠한 哲學으로 이해하느냐이며, 이때에 哲學은 어떤 개념과 의미를 갖는것인가에 있다.

맑스의 이론과 사상을 哲學的인 문제로 이해할 때에 무엇보다 歷史에 관한 哲學으로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이유를 갖는다고 하겠다. 그것은 이제까지 맑시즘에 관한 철학적 논의가 가장 많이 辯證法的 唯物論이나 歷史的 唯物論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도 근거하지만 맑스 자신이 歷史에 관한 본질적 이해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으며 歷史의 研究에다 중대한 意味를 부여하였다는 데서도 타당한 근거를 갖는다. 歷史문제는 맑스에게 있어서 처음부터 核心的인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⁵⁾ 맑스는 이미 1844년에 쓴 「헤겔法哲學批判 緒論」에서 “독일에서는 사실상 宗教批判은 끝났다”고 하면서 “저 세상의 진리가 사라진뒤에 이세상의 진리를 만드는것은 바로 歷史의 課題다. 人間の 自己疎外가 가진 거룩한 모습을 벗기고난 다음에 그 世俗的인 모습을 벗기는 것은 우선 歷史에 봉사하는 哲學的 課業이다. (die Aufgabe der philosophie, die im Dienste der Gerchichte steht)”고 했다.⁶⁾ 여기서 「역사에 봉사하는 철학」이라는 맑스의 표현은 분명히 歷史哲學을 의미하며 헤겔적인 역사철학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역사철학을 의미한

1) F. Engels, Anti-Duhring, 1876-78. MEW 20 25f, 264f.

2) K. Marx., MEW .Bd 1. S. 391.

3) Marxism과 哲學의 문제에 관해서는 Istuán Mészáros, Marx Philosoph, in: Eric J. Hobsbawm, The History of Marxism, Indiana University Press, Bloomington, 1982, p. 103-136.

Jurgen Habermas, Die Rolle der Philosophie im Maxismus, in; ders, Zur Rekonstruktion des Historischen Materialiemus Suhrkamp, Frankfurt, 1976, S. 49.

4) 예를들면 Karl Korsch Marxismus und Philosophie, 1923; J.P. Sartre, Existenzialismus und Marxismus.

5) Helmut Fleischer, Marxismus und Geschichte, Suhrkamp, Frankfurt, 1969. S. 11.

6) K. Marx, MEW. Bd. 1. 위의책 S. 379.

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맑스 자신은 哲學에 대한 否定的인 이해 때문에 歷史哲學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人間의 現實인 疎外現象을 파악하며 비판하는 과제를 歷史學 내지는 歷史哲學에다 기대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는 「독일의 이데올로기」에서 歷史學의 위치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¹⁾ “우리는 단지 하나의 學問만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歷史에 관한 학문이다. (Wissenschaft der Geschichte) 역사는 두가지면에서 관찰되는데 하나는 自然의 歷史며 다른 하나는 人間의 歷史다. 이 두가지면은 서로 분리되어서는 안된다. 인간이 存在하는한 自然의 歷史와 人間의 歷史는 서로 제약하고있기 때문이다. 자연의 역사는 곧 自然科學이겠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우리는 人間의 歷史를 문제삼아야 한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이데올로기는 바로 이 歷史의 잘못된 파악이거나 歷史의 抽象化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는 곧 인간의 歷史의 한면일 뿐이다.” 여기서 우리는 ‘독일의 哲學을 이데올로기라’고 규정한²⁾ 맑스가 ‘歷史의 왜곡된(verdrehte)파악이나 추상적 파악이 곧 이데올로기라’고 하면서 역사의 구체적이며 바른 파악이 곧 인간을 위한 바른 학문이라고 주장하는데서 그의 역사철학적인 관심을 볼수있다.

맑스에 있어서 歷史把握은 自然을 제외한 人間의 모든것에 대한 파악이다. 따라서 그의 歷史哲學은 人間에 관한 모든 哲學의 綜合이며 結晶이라고 할수 있겠다. 人間의 存在와 實在에 관한 문제도, 認識과 論理의 문제도, 社會와 倫理에 관한 문제도 맑스는 歷史(Geschichte)라는 概念속에서 파악하고자한다. 그럼으로, 人間의 歷史를 全體的으로, 體系的으로, 論理的으로 그리고 具體的으로 파악하려는 맑스의 歷史哲學은, 人間의 삶과 행위를 분야별로 파악하는 經濟學이나 政治學, 社會學, 法學등이 분할되지 않고 統合되는 認識이라고 할수있으며, 이 점에서 곧 哲學的 認識의 전부라고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버마스가 맑스主義理論을 전체적으로 「實踐的 意圖를 가진 經驗的 歷史哲學」(empirische Geschichtephilosophie in praktischer Absicht)이라고 특정짓고 있는 것도³⁾, 그것이 資本論이든 革命論이든 階級論이든 모두 넓은 意味에서의 歷史哲學에다 포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면 맑스의 歷史哲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며, 오늘의 歷史哲學的 論議에서는 어떻게 그 性格을 規定해 볼 수 있을까? 歷史哲學이 무엇이나고 물으면 길다란 고찰과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대체로 역사에 관한 哲學的인 물음들을 대답해보려는 것이었다고 할수 있다. 원래 역사철학이란 말은 계몽기의 Voltaire가 처음 쓴 말이며 「歷史를 哲學的으로 이해하며 기술한다」는 의미로 썼다.⁴⁾ 이때에 볼테르는 ‘哲學的으로’라는 의미를 神의 섭리와 의지를 중심으

1) K. Marx, u. F. Engels Deutsche Ideologie, in MEW, Bd 3. S. 18.

2) ‘Die Ideologie überhaupt, speziell die deutsche Philosophie’ in MEW. Bd. 3. S. 18.

3) Jürgen Habermas, Theorie und Praxis, 위의책. S. 179.

4) Voltaire는 1764년에 David Hume이 쓴 「英國史」(Complete History of England)에 관한 書評을 하면서 “오늘의 時代는 歷史를 哲學的으로(en philosophe) 써야할 필요가 있는 時代”라고 했다. 그는 1756년에는 “普通史와

로 人間의 歷史를 서술한 中世의인 歷史神學에서 벗어난 인류의 普遍史를 쓰겠다는 뜻으로 생각했고, 인간의 理性이 중심이 되는 歷史理解를 역사철학이라고 했다.¹⁾ 그뒤로 歷史哲學은 Kant, Herder, Hegel을 거치면서 歷史의 本質과 進行過程, 發展의 目標과 理念을 인간의 理性의 토대위에 정착시키는 작업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歷史哲學들은 대체로 人間의 歷史가 理性을 중심으로 하여 發展하고 進歩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歷史의 未來나 目標도 理性이 차츰 지배하며 실현되는 世界로 나아갈 것이라고 展望했다. 이것은 世界市民的인 理性이 歷史發展의 理念이 된다고 본 Kant나²⁾, 人間性이 추진되는 歷史를 내다본 Herder나³⁾, 理性의 최고형태인 世界精神이 이끌어가며 궁극에 완전모습을 나타내는 歷史를 그린 Hegel⁴⁾에서 마찬가지로였다. 말하자면 근세에 와서 우선 自然現象에 대하여 神學的인 宗教的인 해석을 배제하고 理性이 發見하는 自然法則과 科學的 理論으로 설명한 人間의 合理的 思考는 18세기 후반부터 歷史現象에 대해서도 그 神秘的 宗教的 모습을 벗기고 理性的인 說明과 解釋을 시도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Hegel에 와서 人間의 歷史와 存在뿐만아니라 自然과 時間 전체를 하나의 理性的 論理體系속에 統一的으로 파악하려는 哲學的 慾求는 다시금 神秘的이며 思辨的인 論議에로 빠졌으며 形而上學的이며 觀念的인 論理들을 만들어 놓게되었다. 人間의 不足한 言語로 부득히 抽象的으로 觀念的으로(非經驗的으로) 서술될수밖에 없는 存在全體의 모습은, 가장 具體的으로 實證的으로 설명될수 있는 客觀精神의 表現인 法哲學이나 國家, 歷史의 哲學에 있어서도 역시 그 實體가 매우 觀念的이며 抽象的으로 서술되었다. 뿐만아니라 人間의 理性과 自由가 歷史에서 進歩하는것으로 파악하면서도 다시금 이를 보다 普遍的인 理性이나 絕對的인 精神에 종속시키며, 歷史의 主體를 具體的인 人間의 理性을 마치 超越한듯한 보편적이며 절대적인(神的인) 精神에다 두는 觀念的인 把握(idealistic Auffassung)에 빠지게된다.

Hegel 이후의 歷史哲學은 대체로 이러한 觀念的이며 絕對的인 歷史의 本質과 主體의 理解에서 벗어나 보다 實在的(real)이며 經驗的이고, 實證的이며 相對的인 歷史의 파악과 歷史의 意味에 대한 理解를 향해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⁵⁾ Marx의 歷史에 대한 理解와 歷史哲學的인 論議도 이러한 흐름과 方向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헤겔이후의 역사철학들은 [1] 歷史의 본질과 방향, 주체가 무엇이나고하는 歷史의 存在論的 理解에도 관심을 갖지만, [2] 歷

民族들의 風習과 精神에 관한 論文”(Essai sur l'histoire generale et sur les maers et l'esprit des nation)라는 책에서 (1769년에야 출판됨) 이미 哲學的인 歷史서술을 비쳤고, 1765년에 써서 1769년에 Essai와 함께 그 서론으로 출판된 책에 “philosophie de l'Histoire”(歷史哲學)란 제목을 붙였다.

1) 특히 中世의인 歷史神學을 대변한 Bossuet의 “普遍史에 관한 論議”(Discours eur l'histoire universelle 1681년)을 직접 공격했다.

2) Immanuel Kant, Idee zu einer allgemeinen Geschichte in weltbürgerlicher Absicht (1784).

3) Johann. G. Herder, Ideen zur Philosophie der Gegenwart der Menschheit (1784-1791).

4) Georg. W.F. Hegel, Die Vernunft in der Geschichte (1822-1830).

5) Herbert Schnädelbach, Geschichtsphilosophie nach Hegel, Freiburg 1974를 참조.

Ranke, Burckhardt, Droysen으로 이어지는 歷史主義的, 相對主義的, 實證主義的 歷史理解는 Hegel 歷史哲學에 대한 反省과 批判的 發展을 통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史를 어떻게 認識하여 무엇을 中心으로 把握하느냐고하는 認識論的 方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며, 나아가서는[3] 歷史의 主體가 人間으로 파악된 이상, 앞으로의 歷史를 위해서는 어떠한 實踐이 요구되고 어떠한 方向으로 歷史를 추진해야하는가하는 實踐論的인 歷史觀에 또한 관심을 가진다. Marx의 歷史哲學을 이러한 세가지 關心에 따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1. 歷史의 本質과 人間解放의 目標

歷史哲學의 근본문제는 변화무쌍한 人間の 事件(Geschehen)들을 있게하고 이끌어가는 本質的인 要素가 무엇이며 이러한 사건들의 연속이 마침내 나아가는 方向과 目標가 어디에 있는냐는 것이다. 원래 歷史(Geschichte)란 말은 ‘생긴다’ ‘일어난다’ (Geschehen)란 말에서 왔고 일어난 事件自體(res gesta)을 의미했다. 일어난 사건들을 전체적 연관관계에서 보며 그 意味와 核心을 파악하는 것이 역사철학의 과제라 할 수 있다. 많은 人間事의 뒤에서 이를 이끌어가는 神의 意味와 은총을 중심으로 역사를 파악한 것이 어거스틴의 神國論에 나타나는 歷史哲學이었고, 古代에서 現代까지의 모든 人類의 歷史를 결국 絕對精神의 自己實現일 뿐이라고 본 것이 헤겔의 歷史哲學이었다.

맑스가 이러한 역사철학적인 근본물음에 대하여 주는 단적인 답변은 神도 精神도 아닌 具體的인 人間이라는 것이다. 특히 맑스의 청년기의 초기작품들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歷史觀은 처음부터 역사의 본질과 주체가 정신이나 관념이나 어떤 추상적 혹은 신비적 존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人間自身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있다. 그는「神聖家族」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歷史가 무엇을 하는것이 아니다. (tut nichts. 역주: 만들어내는것). 역사가 무슨 굉장한 보물(ungeheuren Reichtum)을 가진것도 아니다. 또 역사가 무슨 투쟁을 하는것도 아니다. 이 모든 것을 해내고 소유하고, 또 투쟁하는 것은 바로 人間이며, 現實的으로 生動하는 人間(der wirkliche, lebendige Mensch)이다. 歷史가 마치 무슨 독립된 人格(aparte person)인 것처럼, 자기의 目的을 수행하기 위해 人間을 수단으로 쓰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곧 自己自身の 目的을 追求하는 人間の 活動性(Tätigkeit)일 뿐이다.”¹⁾

역사가 마치 인간의 행위의 삶을 떠나서 存在하는 어떤 實體인 것처럼 생각하면 모든 종류의 역사철학을 맑스는 거부하고 있다.

맑스는 歷史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를 파악하기에 앞서서, 歷史의 基本前提(die erste Voraussetzung aller Geschichte)가 무엇이냐하는 것을 먼저 確認해야한다고 주장한다.

“人間은 歷史를 만들수있기위해서는 (Geschichte machen) 우선 살수(leben)있어야 한다. 산다는데는 무엇보다 먹는 것(essen) 마시는 것(trinken), 주택, 의복등이 속한다. 최초의 역사적

1) F. Engels u. K. Marx, Die heilige Familie [1845], MEW Bd 2. Berlin Dietz Verlag, 1969, S. 98.

행위는 이러한 욕구(Bedürfnisse)들의 만족을 위한 수단을 강구(Erzeugung)하는데 있다. 즉 物質的 삶의 生産(Produktion des materiellen Lebens)자체에 있는데 이와같은 역사적 행위(Tat)가 곧 모든 歷史의 基本條件(Grundbedingung)이다.”¹⁾ 역사의 기본문제를 인간의 구체적인 삶에서 보자는 맑스의 주장은 오늘날에는 거의 보편적인 인식이지만, 당시의 철학이나 역사 서술은 이러한 평범한 世俗의인 土臺(irdische Basis für Geschichte)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맑스는 비판했다. 이러한 역사의 토대를 무시함으로써 결국 역사의 바깥에 있는 표준(Maßstab)에 따라 역사를 쓰게되고, 人間의 日常의인 삶과 동떨어진 超世界的인 存在(das vom gemeinen Leben Getrennte, Extra-Überweltliche)가 나타나게된다고 주장했다.²⁾

人間의 現實的 삶을 토대로 보는 맑스의 역사관은 [1] 우선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物質的 삶의 生産過程에 주목하여 [2] 이런 욕구의 만족이 또한 새로운 慾求(Bedürfnisse)를 낳게되며 [3] 인간은 자기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갈 뿐 아니라, 다른 人間의 삶을 생산하는데 즉, 자식을 낳고 가족을 이루며 社會를 만들어 간다. 가족은 최초의 사회적 관계에 社會를 통해 또한 새로운 慾求가 발생하고, 새롭게 증가된 慾求들은 또한 새로운 社會的 關係를 만들어 놓는다고 했다. [4] 社會속의 여러 個人들이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든 작용(Zusammenwirken der Individuen)을 그는 生産力(Produktivkräfte)이라고 보았다. 社會的 삶을 만들어내는 힘이라는 의미에서였다. 物質的인 것을 만들어내는 기술과 산업(Industrie)뿐만 아니라 여러 個人들이 함께 작용하고 노력하는 方式(diese Weise des Zusammenwirkens)들도 生産力이라고 表現한 점에³⁾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맑스는 인간의 삶의 歷史는 반드시 社會적 삶을 만들어온 生産力의 歷史와 함께 研究되고 高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역사과학에서는 人間의 物質的인 관련성(ein materialistischer Zusammenhang der Menschen untereinander)이 중요한데 이것을 慾求들과 이욕구를 만족시키는 生産樣式(die Weise der Produktion)에 의해 제약(bedingt)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결코 맑스는 歷史에서 인간의 物質的인 관련성만을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이를 제약하는 生産力이나 生産樣式도 物理的이며 技術的인 능력만이 아니라 광범한 의미에서 人間의 社會的 關係(精神的인 力量까지도 포함하는)를 포괄하는 概念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인간의 이러한 歷史的 行爲에 있어서 意識이나 精神이 차지하는 부분은 없는가? [5] 맑스는 人間이 意識을 가진 存在일 뿐아니라 특히 동물과는 달리 物質에 대한 직접적인 의식만이 아니라 환경과 他人間에 대한 관계를 意識하는 存在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意識은 처음부터 純粹한 意識(reines Bewußtsein)이 아니며, 意識이나 精神은 본래부터 物質과 연결된(mit der Materie “behaftet” zu sein) 운명(Fluch)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증

1) K. Marx und F. Engels, Deutsche Ideologie (1845-46), MEW, Bd 3. S. 28.

2) 위의 책. S. 39.

3) 위의 책. S. 30.

명하는 것이 言語(Sprache)의 형태로 나타나는 意識이라고 한다. “言語는 意識만큼 기원이 오래된 것이다. 그런데 言語는 他人을 위해서 存在하며 또 나 自身을 위해서 存在하는 실제적이며 현실적인 意識(praktische wirkliche Bewußtsein)이다. 그리고 言語는 意識과 마찬가지로 어떤 慾求에서(aus dem Bedürfnis) 생겨나며 他人과 交渉해야할 급한 必要에서(Notdurft des Verkehrs mit anderem Menschen) 생긴다. 言語와 意識의 起源과 發生을 이렇게 보는것은 理論的 論爭거리가 되겠지만 意識이 他者와의 關係에서 생긴다든가, 어떤 必要에서 나온다는 주장을, 意識이 物質에서 생긴다든가, 意識은 自律性を 갖지 않는다는 俗流的 唯物論(vulgär Materialismus)과 同一視해서는 안될 것 같다.

그러나 맑스는 人間의 意識이 처음부터 고차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自然에 대한 關係가 거의 動物的인 意識이었다가 人間の 慾求와 生産의 活動이 증대하면서 차츰 分화되고 발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¹⁾ 意識의 生物學的이나 存在論的인 원천을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自然史的인 發展過程을 確認하려는 것이 맑스의 意圖였던것 같다. 어쨌든 맑스는 人間の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意識의 行爲와 이를 제약하는 여러 조건들, 生産力, 社會關係등과의 상호 關係속에서 人間の 歷史가 發展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욕구의 증대, 生産력의 증대, 人구의 증가를 거쳐서 勞動의 分業이 생기며 이것이 여러가지 生産關係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고 파악했다.

우리는 여기서 物質的인 삶의 關係, 生産關係, 社會關係가 人間の 歷史를 발전시켜온 근거(Grundlage)며 토대(Basis)였다는 맑스의 歷史觀을 人間이 歷史의 主人이 아니며 단지 被動的으로 反應하는 存在에 불과하다는 식으로까지 확대해석해서는 안될 것 같다. 물론 맑스의 여러가지 時代에 여러가지 狀況에서 쓴 단편적인 글들은 꼭 論理的, 體系的一貫성을 갖지는 않으며, 간혹 오해를 할 수 있는 구절들이 없는 것은 아니나, 우리는 이를 가급적 原文에 충실한 해석과 全體的 關係에서 이해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Hegel, Feuerbach의 影響이 강하게 남아있는 青年맑스의 작품, 「經濟哲學手稿」에서 그는 歷史가 人間이 意識을 가지고 人間の 本質을 회복하는 過程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表現하고 있다. “歷史란 그 자체가 自然史(Naturgeschichte)의 現實的인 한 部分이다. 즉 自然이 人間化되는 過程인 것이다(ein wirklicher Teil der Naturgeschichte, des Werdens der Natur zum Menschen)”²⁾ “世界史의 전체는 곧 人間の 勞動(Arbeit)을 통한 인간의 產物이며, 人間을 위한 自然의 生成과정(das Werden der Natur für den Menschen)이외의 것이 아니다”³⁾ 여기서 맑스는 ‘인간의 本質’(Wesen des Menschen)이라는 매우 추상적이며 관념적인 용어를

1) 위의 책. S. 31.

2) K. Marx., Ökonomisch-philosophische Manuskripte. (1844) MEW. Ergänzungs band I., Berlin Dietz Verlag 1968. S. 544.

3) 위의 책. S. 546.

사용하고 있으며, 人間의 自然狀態는 人間의 本質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adäquat), 人間의 歷史過程도 人間을 對象化시키며 (vergegenständlichen) 外化(entäußern) 시킨다는 헤겔의 『精神現象史』의 概念들을 사용하면서 人間의 本質에서부터 疎外된것으로 파악한다. 단지 맑스는 헤겔의 人間疎外에 대한 파악의 방식이 思性 형태속에서만 머물러있다고 비판한다. “헤겔哲學의 탄생지인 「Phänomenologie」에서는 財産(Reichtum)이나 國家權力(staatsmacht) 등을 人間의 本質에서부터 疎外된 本質(als dem menschlichen Wesen entfremdete)로 파악하지만 이것은 단지 思惟形態(in Gedankenform)속에서만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純粹하고, 抽象的이며, 哲學的인 思惟의 疎外가 되고 만다. ……그래서 이 疎外의 全歷史도, 이 疎外의 全회복과정 (die ganze Zurücknahme der Entäußerung)도 추상적이며 절대적인 思性的 生産歷史(Produktionsgeschichte des abstrakten, absoluten Denkens)이상의 것이 되지 못한다”¹⁾

맑스는 「疎外된 勞動의 章」에서 人間의 類的本質(Gattungswesen)로 부터의 人間소외를 論한다. “소외된 노동은 人間의 類的本質 즉 그의 精神的 類的 能力(Gattungsvermögen)과 그의 本性(Natur)을 자기에게 외소한(fremd) 본질로, 즉 자기 개인의 實存(Existenz)을 위한 수단으로 만든다. 그것은 인간에게서 人間的인 本質(menschliches Wesen)을 疎外한다”²⁾ 人間의 歷史가 疎外의 과정을 통해 人間의 本質에서부터 멀어졌다는 맑스의 주장에서 人間의 本質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이것은 1859년에 「政治經濟史批判」 서문에서 밝힌 “敵對的인 社會를 변혁시켜 새로운 社會를 형성함으로써 前歷史(Vorgeschichte)가 종료되고 人間的인 社會(menschliche Gesellschaft)가 시작된다”³⁾는 주장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마도 Fleischer의 해석처럼,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적 인간관계나 적대관계가 새로운 사회에서 해소되게 되면, 모든 人間들을 결합시키는 類的本質에 가까운 人間的인 社會가 온다는 의미에서 「인간의 본질회복」이나 「인간적인」이란 말을 썼을 것으로 보인다.⁴⁾

人間化(menschwerden)와 인간적인 社會形成을 人間이 만드는 歷史의 목표로 보는 맑스의 歷史觀은 青年期부터 가졌던 그의 人間解放思想과 밀접히 관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독일에서의 진정한 해방은 독일인을 인간으로 해방하는것 (Emanzipation des Deutschen zu Menschen)이며 “인간의 완전한 회복(die völlige wiedergewinnung des Menschen)”에 있다고⁵⁾ 본 생각이나, “모든 解放은 人間의 世界를 人間自身에게 되돌리는 것(Zurückführung)”이며 “政治的 解放이 最後의 해방이 아니라 現實的인 個別的인 人間이 類的本質이 되고나야 人

1) 위의 책, S. 572.

2) 위의 책, S. 517.

3) Karl Marx, Zu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Vorwort, MEW. Bd 13. S. 9.

4) Helmut Fleischer, 위의 책, S. 20.

5) K. Marx, Zur Kritik der Hegelschen Rechtsphilosophie. Einleitung, MEW. Bd 1, S. 390f.

間的인 解放이 이루어진다.”고¹⁾ 본 青年맑스의 사상이 그의 人間主義的인 歷史哲學의 기초가 되고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맑스의 歷史의 本質과 目標에 대한 견해가 과연 唯物論(Materialismus)인가 하는데 의문을 가지게된다. 맑스自身은 자기의 歷史觀이나 歷史哲學을 唯物論이라고 表現해 본적이 없다. 오히려 그는 Hegel적인 觀念論과 Feuerbach적인 唯物論을 모두 克服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初期作品에 나오는, 맑스自身이 同一觀하려고 했던 표현은 自然主義(Naturalismus)와 人間主義(Humanismus)였다. 그는 「경제철학수고」에서 이렇게 말한 “우리가 본대로 自然主義와 人間主義의 실현은 觀念論에서도 唯物論에서도 區別되는 것이며 오히려 兩者를 결합하는 眞理다(beiide vereinigende Wahrheit). 우리는 동시에 이러한 自然主義만이(역자주: 人間主義도 포함되는 의미에서) 世界史의 움직임(den Akt der Weltgeschichte)을 파악할 능력이 있음을 알게된다.”²⁾ 맑스는 觀念論的 歷史觀에 대한 Feuerbach의 唯物論的 批判의 공로를 인정하면서도 그의 유물론엔 歷史가 빠져있음을 중요한 과오로 보았다. “Feuerbach가 유물론자인 歷史가 배제되고, 歷史를 고려하는한 유물론자가 못된다”³⁾ 이러한 唯物論이 人間과 歷史를 抽象的으로 파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人間の 現實的인 活動과 具體的인 實踐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⁴⁾ 이러한 점은 Feuerbach에 대한 첫번째 테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맑스의 歷史哲學은 흔히 일컬어지듯이 歷史와 唯物論을 합해서 歷史的 唯物論(hist-
orischer Materialismus)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 필자는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과
주저를 갖고 있다. 맑스자신은 스스로를 그렇게 부른 적이 없기 때문이다. 人間の 實踐的인
活動을 歷史라고 본점에서는 歷史的 唯物論이 적합한 명칭인 듯도 하지만, 歷史自體를 唯物
論적 흐름이요 進行이라고 보았다는 意味에서의 史的唯物論이라면 맑스의 생각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2. 歷史의 認識과 唯物論의 方法

歷史의 本質과 進行의 方向이 무엇이냐하는 물음은 歷史를 어떻게 認識하고 把握하느냐는
方法에 따라 다르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다. 歷史的인 事件과 흐름은 여러가지가 아니고 하
나이지만 人間은 과거의 事實과 事件들을 모두 파악할 수는 없으며, 기록되고 전해진 것들을
통해서 파악하게 되는데, 그것도 전부가 아니라 重要하고 意味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選擇

1) K. Marx, Zur Judenfrage. MEW. Bd 1, S. 370.

2) MEW, Bd 1. S. 577.

3) Marx. u. Engels Deutsche Ideologie, MEW. B. 3. S. 45.

4) 위의 책. S. 44.

하여 그들사이의 관련성을 짓고 이야기를 만든다. 우리가 파악하는 歷史는 일어난 사건 그대로의 歷史(res gestae)가 아니라 기억되고 이야기된 사건으로서의 歷史(rerum gestarum memoria)일뿐이다. 따라서 무엇을 중심으로 어떤 일들을 선택해서 認識하며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 사건들의 관련성을 파악하느냐에 따라 여러가지 다른 역사(이야기로서의 Geschichte)가 만들어진다. 역사의 내용이 역사적 認識의 方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 그래서 보다 객관적이며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歷史認識이 必要하다는 생각은 대체로 헤겔이후에 발전되었다.¹⁾ 19세기 후반에 와서 認識論이 中心이되는 哲學思潮와 함께, 역사철학도, 歷史의 本質이나 目的보다는 認識의 方法을 주로 論하게 되었다. 歷史主義나 實證主義 相對主義등의 등장은 바로 Hegel이후의 歷史哲學에 대한 認識論的 反省에 의해서 나타난 것들이라 하겠다.

맑스의 歷史哲學도 분명히 헤겔이후에 歷史的 認識의 方法을 反省하며 나타난 하나의 歷史的 認識論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물론 認識의 方法에 따라 歷史의 파악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맑스의 새로운 역사인적 방법은 결국 전혀다른 歷史觀과 歷史理解를 만들어 놓게 된다. 맑스는 Hegel이나 Feuerbach, Bruno Bauer 등의 史觀과 歷史理解를 비판하며 거부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歷史認識의 方法을 비판하였다. 맑스는 특히 헤겔이나 헤겔학파의 역사 파악이 현실에서 떨어진 觀念的인 것이며 歷史의 참된 토대(wirkliche Basis der Geschichte)를 놓치고 있다고 했다. “프랑스인들이나 영국인들은 적어도 政治的 환상에 머물고 있는데 독일인들은 아직 ‘순수한 정신’의 영역에서 맴돌고 있다. 더구나 宗教的 幻相(Illusion)을 歷史의 推進力(treibende kraft)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헤겔의 歷史哲學은 現實的이고 政治的인 關心을 문제삼지 않고 순수한 觀念(reine Gedanken)만을 문제삼는 독일인의 역사기술의 마지막 결파이다”²⁾ 이러한 잘못된 역사파악의 방식을 맑스는 觀念論的인 歷史觀(idealistische Geschichtsanschauung)이라고 했다.³⁾

그러면 맑스가 주장하는 올바른 歷史把握의 方式은 어떤것인가? “그것은 觀念論적 역사관처럼 어떤 범주(kategorien)를 찾는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歷史의 토대위에(auf dem wirklichen Geschichtsboden) 서있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이념에서 實踐(praxis)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의 형성(Ideenformation)을 物實質的인 實踐(aus materiellen praxis)으로 설명한다.⁴⁾ 맑스가 주장하는 역사파악의 올바른 방식은 歷史의 토대(Basis, Boden), 基礎(Grundlage)를 파악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토대는 바로 人間의 具體的이며 物質的인 삶의 生産이며⁵⁾,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生産樣式과 사람들의 社會關係(verkehrsform)

1) Herbert Schnädelbach, Geschichtsphilosophie nach Hegel.

2) Deutsche Ideologie, MEW, Bd 3. S. 39.

3) 위의 책. 38.

4) 위의 책. S. 38.

5) 위의 책. S. 37. 여기서 수차례 나타나는 materiellen Leben 혹은 praxis 말은, 物質的이면서도, 具體的이며, 實質的인 삶이나 실천을 말한다.

를 함께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데로 맑스는 역사를 人間의 삶과 社會的 삶의 樣態를 결정하는데 핵심적 要素와 기초적 토대가 되는 物質的 삶의 生産樣式 즉 生産力과 生産關係의 상호관련에 의해 이루어지는 生産樣式이라는 社會的 經濟的 構造와의 밀접한 관련속에서 파악해야 歷史를 바르게 認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¹⁾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맑스의 歷史認識方法이 歷史的唯物論(Historischer Materialismus)이나 辯證法的 唯物論(dialektischer Materialismus)이라는 이름의 거창한 체계(system)로 理論化되었을뿐 아니라 하나의 世界觀(weltanschauung)이 된것을 알고 있다. 물론 여기엔 맑스의 이론뿐아니라 Engels의 사상과 Engels에 의해 설명된 맑스의 사상이 더 중요한 이론적 典據가 되고있지만²⁾ 이들보다는 後代의 맑스主義者(marxisten)들에 의해³⁾ 확대해석되고 첨가된 부분이 더 核心的인 역할을 하고있음을 注目할 필요가 있다. 특히 史的唯物論은 物質的 土臺와 精神의 上部構造라는 二分法的 圖式으로 歷史와 社會를 觀察하며, 政治, 法, 文化, 價值觀, 이데올로기등의 상부구조는 經濟라는 하부구조에 의해 決定된다고 보고⁴⁾ 生産力과 生産關係라는 經濟構造가 決定하는 人間이 歷史는 科學的인 法則에 따라 마치 自然界가 변화하듯이 辯證法的으로 변화 발전한다고 주장한다.⁵⁾ 맑스의 歷史把握의 方法이 이러한 體系의인 歷史的唯物論과 同一視될 수 없다는 것은 그의 작품들을 읽음으로써 쉽게 理解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맑스의 역사인식과 史的唯物論을 분리해 볼 필요가 있으며 맑스와 맑스主義(Marxismus)를 區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원래 맑스 자신은 歷史認識에 있어서 삶의 物質的 生産關係(materielle produktion des Lebens)와 밀접히 관련된 社會構造를 파악하는것이 핵심적으로 중요하다고 여러곳에서 強調하여⁶⁾ 物質的인 關係(materielle verhältnisse)⁷⁾ 물질적인 行爲(Tat) '물질적인 實踐(praxis)' 그리고 '인간의 要求(Bedürfnisse)와 生産樣式에 의해 제약되는(bedingt) 人間사이의 唯物論的인 關聯性(materialistischer zusammenhang der menschen untereinander)'⁸⁾ 등의 표현을 썼지만 자신의 方法을 통틀어 唯物論的 歷史把握(materialistische geschichtsauffassung)이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이 表現은 처음에 Engels가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을 소개한 글에서 씀으로서 하

1) Karl Marx, Zu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Vorwort, ME. ausgewählte Schriften Bd 1, Berlin 1966. Dietz verlag S. 335f.

2) Engels의 Anti-Dühring, Dialektik der Natur

3) Kautsky, Plechanow, Lenin, Bucharin, Stalin 등

4) 生産力의 發展의 程度는 人間의 社會關係를 표현하는 사회의 形態를 決定하며 이러한 사회형식에 적합한 精神과 道德, 宗教, 哲學, 藝術을 만들어 낸다. Georgi W. Plechanow, Beiträge zur Geschichte des Materialismus. (1896), Berlin 1946, S. 152.

5) 意識을 存在의 反映(widerspiegel)으로보며, 史的唯物論이 人間의 社會的 삶에 대해 自然科史的 正確性을 탐구하게 했다.

W.I. Lenin, Materialismus und Empirokritizismus. (1908), Moskau, 1947. S. 347-350. (I. Fetscher, Der Marxismus, München 1967.

6) 특히 Deutsche Ideologie 와 Zu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에서

7) MEW. Bd 3, S. 46.

8) MEW. Bd 3. S. 30.

나의 學術的인 用語가 되어버렸다.¹⁾ 이를 다시금 史的唯物論(historischer materialismus)이라고 하게 된 경위는 엥겔스의 책 「유토피아에서 科學으로의 社會主義 發展」이 英語로 번역되었을 때 Engels가 英語版의(1892년) 서문을 쓰면서 materialistic interpretation of history 대신에 historical materialism이란 표현을 쓴데서 유래하게 되었다.²⁾ 그러나 엥겔스 자신은 唯物論的의 ‘歷史把握’이란 표현을 주고 즐겨 썼는데 史的唯物論이란 개념은 그 후 P. Lafargue, Labriola, plechanow, Lenin에 의해 정착되었으며 특히 Stalin 治下 소련에서 확고한 援條的 理論으로 자리잡게 되었다.³⁾

맑스의 歷史把握의 方法으로서의 ‘唯物論的인 態度’⁴⁾와 體系的인 世界觀으로서의 史的唯物論과의 근본적 差異는 맑스주의 歷史에서 주요한 論爭點이 되었지만, 주로 意識과 存在의 反映관계, 經濟的 下部構造의 結定論(ökonomischer determinismus), 그리고 歷史와 自然의 法則的인 進行論 등에 있다고 볼 수 있다.⁵⁾ 맑스가 『政治經濟學批判』序文에서 밝힌 구절들을 즉 맑스의 意圖나 原文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mechanisch), 決定論的으로(deterministisch), 그리고 自然法則的으로(naturgesetzlich) 확대 해석하며 이를 實體化(hypostasieren)하는데서 唯物辯證法(materialistische dialektik)이나 史的唯物論이 맑스의 眞意와는 다르게 세계관으로 체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맑스는 특히 역사에서 經濟的 關係를 중요하게 보게 된 계기가 헤겔法哲學研究와 그 批判(1844년)에서 비롯되었다고 고백했다. “나의 研究의 결과는 법이나 國家形態라는 것이 그 自體로의 파악되거나 혹은 人間의 精神의 보편적인 發展에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物質的인 삶의 관계에서 더 잘 파악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헤겔은 이를 市民社會(bürgerliche gesellschaft)라는 이름하에 전체적으로 포괄하였지만(zusammenfassen), 시인 사회의 내부(anatomie)는 정치경제학에서 찾아야 한다.”⁶⁾ 맑스가 자기 研究의 線잡이(leitfaden)로 삼았다는 認識의 기본적 태도는 다음과 같이 要約된다. “인간은 자기의 삶을 사회적으로 만들어가는데 있어서(in der gesellschaftlichen produktion des lebens), 자기 意志와는 불가피하게 다른(unabhängig) 어떤 특정한 관계, 즉 그의 物質的 生産力의 발전정도에 相應하는(entsprechen) 生産關係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eingehen). 이 生産關係의 全體는 사회의 경제적구조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法的, 政治的 上部構造(überbau)가 그위에 세워지는 실재적 土臺(basis)이며 여기에는

1) “이 과학적인 독일의 정치경제학은 근본적으로 歷史的 唯物論的의 파악에 (auf der materialistischen Auffassung der Geschichte) 근거하는데……” F. Engels, Karl Marx, Zu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in “Das Volk” Nr. 14. 6, August 1959. (MEW, Bd 13).

2) J. Ritter und K. Grunder, Philosoph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Basel 1980, Bd 5. S. 860.

3) I.V. Stalin, Über dialektischer und historischer Materialismus, (1938).

4) 筆者는 Marx의 立場을 歷史를 파악하는 方法으로서 보는한 ‘唯物論的’(materialistisch)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도 ‘觀念論的’(idealistisch)인 태도에 대한 批判的인 관계에서, 그리고 相對的인 意味에서 그렇게 부를 수 있다고 본다.

5) 특히 Kautsky와 Adler, Gramsci, Lukács, Korsh 등의 論爭 참조.

6) K. Marx, Zu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Vorwort, MEW Bd 13.

어떤 특정한 사회적 意識形態(Bewußtseinsformen)가 對應하게된다(entsprechen). 物質의 生産樣式이 사회적, 정치적, 精神的 삶의 過程(lebens prozeß) 전반을(überhaupt) 制約하는 것이다(bedingt). 인간의 意識이 그의 存在를 規定하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의 社會的 存在(gesellschaftliche sein)가 意識을 規定한다(bestimmt)¹⁾

맑스의 이와같은 조심스런 문장은 史的唯物論者들이나 또 그 批判者들에 의해서 ‘物質이 精神을 規定한다’ 든가 ‘生産力이나 生産關係가 政治, 法, 文化, 哲學, 모든것을 決定한다’ 는 뜻으로 曲解되어 單純化되고 있다. 이것은 물질적 삶의 양식이 정신적 삶의 과정을 결정(bestimmen, entscheiden)하는 것이 아니라 制約(bedingen)한다고 본 맑스의 表現과는 큰 차이를 갖는다. 결코 單線的으로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制約의 要素가 됨을 강조한 것일 뿐이다. 經濟構造와 意識構造의 관계도 필연적인 規定이나 決定관계(즉 因果關係)가 아니라 서로 對應하는, 相應하는(entsprechen) 관계라고 표현했다. 단지 社會的 存在와 意識의 관계만을 規定關係(bestimmen)로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전체에 관한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경제적 토대와 상부구조의 관계를 결정론적으로 기계적 관계처럼 불려고 한 歪曲은 이미 맑스나 Engels의 시대에도 있었던것 같다. 맑스나 자신의 사상과 방법을 辯證法的 唯物論이라는 科學的 理論體系로 만들려고 했던²⁾ Engels도 이런 기계론적 해석을 못마땅히 여겼으며 唯物論的 歷史把握의 방법을 매우 유연성이 있는것으로 설명했다.

그는 Joseph Bloch 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한다. “유물론적 역사과학은 역사에 있어서 최종적 단계에 이르러(in letzter instanz) 결정적인 요소는 현실적인 삶의 生産과 再生産이란 것이다. 그 이상은 맑스도 나도 주장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경제적 요소가 유일의 결정요소(des einzig bestimmende moment)라고 곡해(verdreht)한다면, 그는 이말을 의미없는 추상적이며 맹랑한 말로 변형시키고 만다. 경제적 관계는 토대이지만 여러가지 형태의 上部構造가 계급투쟁의 정치형태나 그 결과들과, 즉 승리한 계급이 가져온 헌법같은 법률형태, 그리고 이들 모든 투쟁에 대한 머릿속에서의 反省(Reflexe), 정치적, 법적, 철학적 이론들, 종교적 가치관이나 그 이론체계들이 모두가 歷史的 鬭爭의 進行에 作用하며, 많은 경우에 현저하게 그 形態를 결정한다. 이들은 모두 상호규정적인 것들이다(Wechselwirkung)”³⁾

변증법적 유물론이나 사적유물론이 世界觀의 體系로 고착화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것은 唯物論的 方法을 獨斷化하며 形而上學化하는 것이라고 경고한 哲學者들도 적지않게 있었다. Labriola 는 맑스의 ‘길잡이’란 말에 주목하여 그의 理論은 철저히 探究의 方法이나 認識의 方法이 되어야지 Shelling 式의 自然哲學的 構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⁴⁾ 史的唯物論

1) 위의 책. Vorwort.

2) Engels, Die Entwicklung des Sozialismus von der Utopie zur Wissenschaft. [1892].

Ludwig Feuerbach und der Ausgang der klassischen deutschen Philosophie [1888].

3) Engels, Brief an Joseph Bloch in Königsterg, vom 21. Sept. 1890. in: MEW Bd 37. S. 463-465.

4) Antonio Labriola, Essais sur la conception materialiste de l'histoire (1896). Paris 1928, S. 194.

이 또하나의 체계적이고 도식적인 歷史哲學이나 독단적인 이데올로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¹⁾

루카치는 맑스의 여러가지 이론이나 예언들이 오늘날 맞지않는 것들이 있다고 해도 맑스主義者가 될 수 있는 것은 理論과 實踐, 歷史的 現實에대한 全體的이며 動的인 파악을 시도한 맑스의 辯證法的인 方法(dialektische Methode)을 따를때에 가능하다고 했다.²⁾ Kautsky의 唯物史觀論을 自然主義的 客觀化라고 비판한 Korsch는 意識과 現實을 둘로 나누어 反映관계나 規定關係를 기계적으로 파악하려는 唯物史觀은 또하나의 二元論的인 形而上學이며 抽象的인 自然主義라고 비판했다. 맑스의 唯物論은 변증법적이며 과학적인 方法으로서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³⁾ 「實踐의 哲學」(philosophie der praxis)을 주장한 그람시 역시 맑스에게서 歷史的인 方法論(methodologie)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⁴⁾ 마치 모든 정치나 이데올로기가 경제적 토대나 기초에서 오는것으로 설명하려는 機械的인 史的唯物論은, 形而上學的인 通俗的 唯物論일 뿐이라고⁵⁾ 하며 Bucharin의 實的唯物論을 비판했다. 맑스의 이론은 하나의 批判的 社會理論으로 再構成하려는 Habermas는 史的唯物論이 가진 歷史客體主義(Geschichtssubjektivismus)를 해체시키고, 맑스의 歷史哲學的인 遺産을 社會的 進化學說(soziale Evolution)과, 意思疎通行爲(kommunikatives Handeln)의 批判的인 認識理論으로 계승발전시키려는 시도를 보이고있다. 이런 뜻에서 그는 史的唯物論의 復歸나 再生이 아니라 再建(Rekonstruktion)을 주장한다.⁶⁾

이처럼 맑스의 이론을 歷史와 現實을 바로 파악하며 具體的이며 全體的으로 理解하려는 認識의 方法으로 보려는자들의 맑스의 歷史發展의 法則이나 經濟的 社會的 分析이나 理論들을 敎條化하거나 絶對化하지 않으며 그것은 歷史的 現實과 狀況이 달라짐으로써 고쳐지고 修正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맑스의 唯物論的인 歷史파악의 方法은, 觀念論的이고 精神主義的인 歷史파악의 方法이 지배하던 시대에 이를 批判하며 代替하기 위한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物質的 關係를 강조하며 만들어진 歷史哲學的인 認識方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맑스 자신이 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독일의 이데올로기」에서 그는 “이데올로기적인 환상과 독단적인 망상과의 關係에서 벗어나는 歷史方法(Geschichtsmethode)이, 특히 이런 풍조가 지배적인 독일에서 發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⁷⁾ 이점에서 맑스의 唯物論的인 歷史認識의 方法은 오

1) 위의 책. S. 138.

2) Georg Lukács, Was ist orthodoxer Marxismus? in; Geschichte und Klassenbewußtsein, Berlin, 1923.

3) Karl Korsch. Marxismus und Philosophie, 1923, S. 112f

4) 특히 Marx의 글 18. Brumaire des Louis Bonaparte. Bürgerkrieg in Frankreich, Revolution und Konterrevolution in Deutschland.

5) Antonio Gramsci, Ausgewählte Werke, 1959, S. 104, 130.

6) J. Habermas, Historischer Materialismus und Entwicklung normativer Strukturen, in: ders, Zur Rekonstruktion des Historischen Materialismus. Frankfurt 1976.

7) MEW. Bd. 3, S. 49.

늘날에도 독단적인 망상이나 이데올로기적인 환상에서 벗어나게 하는 歷史方法이 될 때에 歷史를 바로 파악하며 發展시키는 有用한 方法이 될 것이며 그 본래의 意味를 살리는 理論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3. 歷史의 進行과 主體的 實踐

歷史의 本質이나 認識에 관한 물음과 함께 질문되어온 歷史哲學의 중심적 問題는 歷史의 主體가 누구며 歷史의 흐름을 進行시켜 나가는 추진력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었다. 설사 오랫동안 歷史神學이 歷史의 主體를 神에게서 보며 역사의 진행은 人間을 구원하는 救續史의 인(Heilsgeschichte) 神의 意志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았다 하더라도 여기서 人間은 어떤 行爲와 實踐을 해야만 구원을 받게되는가를 묻는 최소한의 歷史哲學의 물음이 있었다.¹⁾ 18세기 초에서부터 비롯되는 계몽적인 역사철학들은 歷史의 主體를 神에서 人間으로 옮기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Vico는 “自然은 神이 만들었지만 歷史는 人間이 만든것이라”고 선언하며 “역사적 세계는 확실히 人間에 의해 만들어졌고 따라서 歷史의 本質은 우리자신의 精神의 양태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 왜냐하면 물건을 만든 사람이 그것에 관해 이야기하는것보다 더 확실한것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한다.²⁾ 그러나 Vico 역시 민족이나 국가들의 역사가 인간의 理性的 발전에 따라 진보하기도 하고(corso) 퇴보하기도 한다는(ricorso) 理性的인 發展史觀을 가졌지만 神의 攝理와 간섭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다.³⁾ Lessing 과 Kant, Herder Hegel 을 거치면서 독일의 歷史哲學은 오히려 Vico 나 Voltaire가 확립한 人間理性을 主體로 하는 歷史觀을 더 흐리고 모호하게 만들었다고 하겠다.

맑스는 헤겔의 歷史哲學이 歷史를 神正論(Theodizee)으로 만들었다고 보았으며, 神秘的인 秩序(mystische ordnung)를 세움으로써 경험적이며 유물론적인 요소를 제거해 버렸다고 했다.⁴⁾ 歷史의 神秘化(Mystifikation)와 思辨化(Spekulation)를 벗기고⁵⁾ 歷史를 人間の 구체적 인 삶의 과정에서, 인간의 요구와 그 충족행위를 中心으로 파악하려는 맑스에게서 歷史를 만드는 것은 人間이며, 그 이외의 어떤 것일 수가 없다. 그러나 그는 人間の 意志와는 독립된 生産關係와 經濟의 토대가 있어, 이것이 역사를 발전시키고 규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봄으로써 완전히 人間の 主體的 意志만이 역사의 進行을 결정한다고는 보지 않았다. 生産力과 生産關係의 상호작용에 의해 形成되는 경제적 구조는, 일종의 自然史的인 發

1) Karl Löwith, Weltgeschichte und Heilsgeschehen. Die theologischen Voraussetzungen der Geschichtsphilosophie 1953.

2) Giambattista Vico, Die Neue Wissenschaft

3) J. Habermas, Theorie und praxis, S. 208

4) Deutsche Ideologie, MEW. Bd 3. S. 49.

5) 위의 책. S. 25

展法則에 따라 변화되어 간다고 보기도 하였다.¹⁾ 여기서 우리는 歷史의 進行을 人間의 主體的인 意志와 實踐이 결정하느냐, 아니면 이와는 독립된 社會關係와 경제적 生産樣式의 발전 법칙이 결정하고 개개의 人間은 수동적으로 여기에 따르기만 하는 것인가라는 딜레마에 놓이게 된다. 이것이 맑스主義者들에게 歷史를 主體的 行爲中心으로, 혹은 客體的 法則중심으로 해석하도록 兩分시킨 원인이 되었다.

여기에 관한 최근까지의 논의를 간단히 살펴보면 대체로 맑스의 青年期의 人間主義的인 작품들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主體的 實踐과 行動을 강조하게 되고, 후기의 「정치경제학 비판」과 「資本論」을 중심으로 보는 자들은 客觀的 法則을 강조하는 歷史觀을 갖게 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²⁾ 그러나 맑스에게 있어서 歷史의 進行의 主體가 社會的 關係에 있느냐, 아니면 人間의 實踐에 있느냐하는 문제는, 적어도 맑스의 글과 표현에 의해서만은 분명한 판가름을 낼 수가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기에는 ‘사회적 관계’라든가 ‘生産力’ ‘生産關係’, ‘實踐’ 등의 개념이 보다 명확히 定義될 수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Fleischer, Schaff와 Althusser는 이점에서 맑스의 「Feuerbach에 관한 테제」 6에 나오는 ‘人間의 本質이 社會的 關係의 綜合(Eneamlbe der gesellschaftlichen Verhältnisse)이라는 命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해석의 열쇠가 주어진다’고 보고 있다.³⁾ 즉 社會的 關係 자체가 주체가 될 때는 歷史란 生産력과 生産關係의 상호작용에 의한 客觀的인 進行이 주가 될 것이고 사회적관계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각 個人的 실천과 활동이 주체가 될 때에는 歷史란 아직 人間이 행동하면서 客觀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될 것이다.⁴⁾

그러나 맑스에게서 둘 중의 어느 것 하나만을 결정적인 주체로 보지 않고 양자의 상호관련 속에서 있는 것으로 보려는 신중한 태도는 초기의 작품들에서부터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다. “歷史란 여러 世代들의 연속적인 계승을 의미하여 각각의 세대는 以前世代가 물려준 資源과 資本과 生産力을 이용하며(exploitieren) 계승해간다(fortsetzen). 이 때에 그들은 이때까지 내려온 행동양식을 계속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치며 수정해가기도 한다(modifiziert)”⁵⁾ 그는 歷史서술이 이 自然的인 토대(natürlichen Grundlagen)와 人間의 行爲를 통한 歷史過程의 修正(Modifikation in Lauf der Geschichte durch die Aktion der menschen)⁶⁾을 함께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맑스는 人間의 實踐行爲와 社會關係라는 토대를 엄격히 분리시킬 수 없는 것으로 보았는지도 모른다. 그는 「Feuerbach에 관한 테제」 1과 2에서 人間의 活動性(Tätigkeit)은 對象的 活動性(gegenständliche)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眞理는 理論的으로가 아

1) K. Marx, Das Kapital. MEW. Bd 23, S. 15-16.

2) Helmut Fleischer, Marxismus und Geschichte, S. 23.

3) Louis Althusser, Pour Marx (1966), S. 233 Adam Schaff, Marxismus und das menschliche Individuum, 1965. S. 84.

4) Helmut Fleischer, S. 28.

5) MEW. Bd 3. S. 45.

6) 위의 책. S. 21.

나라 實踐의 행위(Praxis)속에서만 파악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現實이나 思想이나 하는 문제는 實踐에서 고립되어서 보면 하나의 스콜라적인 문제밖에 안된다고 했다. 여기서 實踐이라는 것이 個人的 人間의 실천이 아니라 歷史的, 社會的 實踐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그래서 다시금 社會的 關係를 내포하게 된다는 것은 나머지 테제들을 자세히 分析해보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점에서, 人間의 踐實은 個人的 行爲와 社會關係의 辨證法的 상호관련에서 규정된다고 할 수 밖에 없으며, 맑스의 歷史哲學은 辨證法的 方法(dialektische Methode)을 채용하고 있다고 認定해야 할 것 같다. 맑스 자신이 자신의 방법을 헤겔과는 반대의 의미에서 변증법적 方法이라고 追認했다.”

‘머리를 땅에 박고 겨꾸로 선’ Hegel의 변증법을 바로 세워 놓는 것이(Umstülpen) 자신의 공헌이었다고 주장한 맑스는 歷史와 唯物論과 辨證法을 결합시키는 위대한 歷史哲學的 작업을 수행한 것이 사실이지만, Adorno가 지적한 것처럼 “歷史에 관한 부분에서는 다른 어느 부분보다 觀念論的 要素를 남기고 있음”을 否定할 수가 없다.” 아마도 歷史를 全體로서 파악하려는 강한 歷史哲學的 意志를 가졌을 때 이것은 불가피한 운명인지도 모른다.

1) K. Marx, Nachwort zur zweiten Auflage des ‘Kapitals’ London, 1873. in: MEW. Bd 23. S. 25-28.

2) Th. W. Adorno, Negative Dialektik Suhrhamp., S. 313. “無神論的 Hesel主義者였던 Marx Engels가 歷史를 神聖化했다”